

# Light Construction

Lee Chunhyung × Chang Sungeun

2017. 4. 7 – 5. 6

##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갤러리 기체는 이정형, 장성은 작가의 2 인전 'Light Construction'전을 개최한다. 서로 다른 매체와 작가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에게는 공간, 장소, 신체, 행위 등을 작업의 주된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의 교차점이 존재한다. 장성은 작가의 제안으로 비롯된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이 교차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즉흥적 협업으로 '작업의 방식과 태도',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두 작가는 개별적 성향을 배타적으로 고수하면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업 과정에서 상황적으로 서로를 향해 열어 두고 의식적인 간섭과 그로 인한 긴장을 유도한다. 전시를 위한 한시적 파트너로 작업과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때그때 각각의 의견을 감각적으로 조율하면서 가시적 공간, 더미를 구축해나간다. 마치 플레이어의 역할을 차례로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턴제 전략게임(Turn-based Strategy)"처럼 자연스레 서로의 역할이 뒤섞이는 것이다. 전시는 아래처럼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각목, 사다리, 시트지, 비닐, 타일, 페인트 통, 합판 등 이정형 작가가 공간 디자이너로 관여했던 기관의 전시를 철수하면서 나온 각종 부산물을 이용해 가상의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연출한다. 이 때 예술가로서 추구하는 이른바 '아름다움'에 대해 두 작가가 형성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된다. 또한 이번 공동 프로젝트에서 두 작가가 만들어내는 '질문' 역시 이로부터 가능해진다. 여기서의 질문이란 아마도 손에 잡힐 듯 결코 잡히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넓음 그 자체로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먼저는 작가 스스로를 나아가서는 감상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전시물은 공간 자체 혹은 비정형의 더미로 이뤄지고, 두 작가의 프린트, 오브제 등 기존 작업이나, 현장의 기물을 활용한 설치물, 드로잉 등이 그 내부를 채우게 된다. 전시가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한편으론 각각의 시점이 강조된 기록이자, 작품으로서 사진 작업을 산출한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일종의 '주제성'에서 탈피할 뿐 아니라, 전시의 독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어느 정도 지양된다.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눈 앞에 펼쳐진 공간, 더미에 때에 따라 직관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흥미로운 매개가 될 것이다.

이정형(b.1983)은 예술가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 설계 및 디자인을 해왔으며 전시장 공사 현장에서 뜻밖에 발견한 예술적 요소들에 주목해 이를 작업으로 선보여왔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송은아트큐브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시립미술관, 송은갤러리,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및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다.

장성은(b.1978)은 장소나 공간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오브제화된 신체 또는 조각화된 신체를 통해 드러내고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함으로써 공간과 장소성을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아마도 예술공간,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트렁크 갤러리,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대구예술발전소, 경기도미술관, 갤러리 잔다리, 백남준아트센터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 5학년 및 파리 제 1 대학 팡테옹 소르본 조형예술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